

여야 '정치 실종' 국회 47일째 표류

당정청 회의 “‘황교안 가이드 라인’이 정상화 막아” 한국당 “경기부양 아닌 총선용 추경” 비난 쏟아내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47일째 표류하면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간 책임정치가 실종되면서 협상보다는 국회 파행의 공방만 깊어지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권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사과·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야는 협상을 접고 국회 파행의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이처럼 국회 공전이 장기화 하면서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권이 정상화 협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던 6월 첫째 주를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도 불투명 해지는 것이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권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딱딱한 입장을 반복했다.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한국당은 배

짱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한국당 때리기’에 가세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7월 중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여권은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47일째 표류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리가 가장 늦은 사례로 기록됐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렸다.

민주당은 추경에 더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6월 국회 단독 소집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실익’이 없다는 기류도 강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 국회를 열어도 추경 처리는 못하고 각종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대외 공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대외 공세를 강화했다.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윤준병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고리로 청와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한국당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 경제 정책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 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정책 실패, 반기업 정책 실패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외연극만, 야당 탓, 추경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이 민생 추경을 강조하며 국회 복귀를 압박하자 한국당은 경기부양이 아닌 ‘총선용 추경’이라 맞받아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오찬 간담회장 들어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과 여야 대표들이 10일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를 위해 국회 사랑채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민주당 황희정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대표 경고 무색 한국당 막말 논평 논란

문 대통령에 ‘빨갱이’ 이어 ‘천렵질’ 비아냥

자유한국당의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거듭된 경고에도 막말 논란이 계속되면서 경고가 무색해졌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빗대어 ‘천렵질’이라고 논평하면서, 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 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배설수

준의 막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당은 “대통령 비판은 모조리 막말인가”라며 반박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9일 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국민 방문과 관련해 “불쏘시개 지퍼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 귀농고는, 천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 홀로 냇가에 똥 담그려 떠난 객”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여기서 ‘천렵질’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천렵이라는 말은 냇물에서 고기잡

이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민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원봉 논란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는 북유럽 순방길에 올랐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협종임 추첨사에 김원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보다 반 국가적, 반 헌법적 망언이 어디 있다. 그것도 현종임 추모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뭐하나. 이게 탄핵 대상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입 달린 의

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한다.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 “황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심사일언(深患一言), 즉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사자성 어처럼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북유럽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에게 상욕보다 더한 저질 막말을 퍼부었다”면서 “경제 영토와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정상 외교를 ‘천렵질’이라고 비난하는 한국당은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기 브리핑

보행자 길 침수·유실·결빙 방지한다

정인화, 보행안전 강화법 대표발의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정인화(광양·구례·국성)의원은 7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보행자 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시설을 각각 포함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보행자 길의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 대책을 포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보행자



의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현행법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내어 교통약자의 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을 돕는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사게특위, 한국·바른미래 불참 ‘반쪽 회의’

수사권조정 ‘장자연 사건’ 수사 미흡 질타

사법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후 처음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 10일 ‘반쪽 자리’로 개최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게특위 전체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환홍 의원, 민주당계 박지원 의원만이 참석했다.

나머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윤 의원의 마저 합의의사 진행 발언을 마친 뒤 회의 개의 약 15분 만에 퇴장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 개최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사게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

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를 관철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은 “6월에는 국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있는데다 특위 시한이 6월말로 끝나 매일, 24시간 특위를 ‘풀가동’ 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사게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이어진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 차관 대상 질의에서는 갑학의 전 법무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질타가 나왔다. /연합뉴스

“위대한 여성지도자·DJ의 동지”

이 총리 이희호 여사 병문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병세가 위중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찾아 문병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이 여사가 입원한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이 여사의 병세를 살폈다.

이 총리는 문병을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원 중이신 이희호 여사님께 문안 올렸다”며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올렸다.

이 총리는 이 여사에 대해 “위대한 여성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반역이자 동지”라고 표현했다.

1922년생으로 올해 97세인 이 여사는 지난 3월부터 세브란스병원 VIP 병동에 입원 치료 중이며, 최근 앓고 있던 간암 등이 악화 하면서 병세가 깊어졌다.

이 총리는 과거 정치부 기자 때 ‘동교동계’를 취재 하면서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그만큼 이 여사와의 인연도 오랜 세월 이어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

*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

- 광주에서 15분
장성 IC, 장성호(댐)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산새좋은.공기좋은
300평 - 매가 2억 1천만 (도로앞면 18m) (국도12m접)
- ① 50평 - 매가 4천5백만(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② 100평 - 매가 9천만원(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③ 300평 - 매가 1억2천만(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기타 추천물건

- ① 장성읍 용강리 - 국도도로 접함 (4,545m2) - 1억3천만
- ② 장성읍 용강리 - 국도도로 접함 (2,270m2) - 7천만
- ③ 장성읍 안평리 - 2차선 도로 접함(523평) - 1억6천

062-382-5500 / 010-6670-9800

상가 매매 [급매]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대형학원,한의원,스포츠,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 감정/시세 → 15억
매 가 → 8억

기타 추천물건

- ① 상무지구 메가박스앞 (7층 중 6층) 80평 ▶ 매가 2억8천
- ② 북구 용봉동 (원룸) 토 80평 건물165평 ▶ 매가 6억8천
- ③ 첨단지구 상가 (10층) 25평 (전망최고) ▶ 매가 9천

062-382-5500 / 010-6670-9800

경매 교육 [기초 특수]

☆ 무료 교육 2회 실시 ☆ (월,수,토)

- ① 초급 실전반 (기초 + 실전)
- ② 중급 실전반 (기초 + 실전 + 특별)
-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 ④ 직업 전문반 (사무실근무, 전문컨설팅)

※ 사무실 함께 쓰실분 (책상, 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 분석 스테디)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문흥동 (상가주택) 토58평, 건86평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2억7천	3. 북구 일곡동 (4층 중 1층상가) 토15, 건41평 ▶ 감정가 3억7천6백 → 최저가 2억6천3백
2. 북구 중흥동 (상가건물) 토52평, 건43평 ▶ 감정가 2억9천6백 → 최저가 2억7백	4. 광산구 우산동 (4층 중 2층 상가) 실평수 121평 ▶ 감정가 14억1천만 → 최저가 4억

062-382-5500 / 010-6670-9800